‘10-1클럽’ 31개사… 한국경제 견인 이들을 주목하라

〈매출 10조-영업이익 1조〉

OECD, 내년 성장률 2.8%로 낮춰 일자리·민간소비 ‘마이너스’ 지속
삼성전자·현대車·SK하이닉스 등 투자·혁신… 글로벌 경쟁력 확보

올해 주식시장에서 ‘매출 10조원-영업이익 1조원 클럽’ 가입이 예상되는 기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전경.

“한국 경제가 단기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와 동반한 물가 상승), 중기적으로 고실업, 장기적으로는 성장과 복지, 재정 건전성의 트릴레마(trilemma·동시에 세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이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2019년 한국경제 대전망’ 기자간담회)

한국경제가 벼랑 끝에 몰려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0%에서 2.8%로, 국제통화기금(IMF)은 2.9%에서 2.6%로 낮췄다. 크리스티안 드 구즈만 무디스 정부신용평가 담당 이사는 ‘2019 한국 신용전망’ 브리핑에서 “한국의 성장이 둔화하고 있으며 특히 수출 성장세 둔화가 유동성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9%에서 2.3%로 조정했다.

일자리가 줄어 들고, 민간소비가 ‘마이너스’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기업들은 투자를 꺼리고 있다.

이 같은 위기속에도 ‘매출 10조-영업이익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리며 한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곳들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의 국부를 창출하는 강력한 성장엔진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주목 대상이란 평가다.

◆ ‘10-1 클럽’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등

1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2016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0조, 1조원이 넘는 이른바 ‘10-1 클럽’에는 31개사가 이름을 올릴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9의 빈자리를 반도체가 채우면서 올해 매출 245조348억원, 영업이익 52조5888억원이 예상된다.

대신증권 이수빈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올 사업 부문별 영업이익은 반도체의 경우 작년보다 22% 감소한 36조5000억원, 디스플레이는 30% 늘어난 3조8000억원, IM(정보기술모바일)은 작년과 비슷한 10조5000억원, 가전은 3% 증가한 2조1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반도체 부문은 올 1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보다 12% 줄고, 2분기에는 4%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2분기 중 수요 회복과 공급 제약 효과로 3분기부터는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SK하이닉스도 40조99억원 규모의 매출과 18조1603억원의 영업이익이 기대된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 고유의 변동성을 상쇄할 수 있는 대응역량이 강화됐다는 판단”이라며 “향후 메모리 업황 둔화 속에서도 자본지출과 현금흐름을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잉여현금흐름 흑자를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도 각각 100조 7337억원, 56조4667억원의 매출이 예상된다. 영업이익 전망치는 각각 3조8693억원, 1조7381억원이다.

신영증권 문용권 연구원은 현대차에 대해 “제네시스 G90(부분변경), 팰리세이드에 이어 2019년에는 G80 완전변경과 뒤를 이어 제네시스 SUV 라인업이 구축될 예정이다”면서 “수출 및 해외지역 평균 판매가격(ASP) 상승을 시도 할 수 있는 해가 될 것이다”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4만원을 유지했다.

금융사로는 KB금융(14조5429억원·4조8105억원), 신한지주(14조5113억원·4조6431억원), 하나금융지주(10조9126억원·3조3180억원) 등이 명품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 끊임없는 혁신과 투자

이들의 저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미래를 내다보는 공격적인 투자, 끊임없는 혁신과 창조적 발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한국경제를 이끌고 있다는 평가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18 산업 연구개발 투자 스코어보드’를 보면 삼성전자는 전 세계 기업 중 연구개발(R&D) 투자를 가장 많이 한 기업에 올랐다. 전년보다 11.5% 증가한 134억3670만유로(17조3000억원)을 투자했다.

LG전자는 53위, SK하이닉스는 67위, 현대차는 73위였다.

명품의 값어치는 그 브랜드가 가진 역사와 가치, 그리고 특화된 디자인과 기능 등으로 결정된다고 한다. 주식시장에서도 이 같은 논리는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삼성전자가 단적인 예다. 국내 기업평가에 인색한 외국계 증권사들까지 호평한다.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서는 생존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길게 보고 투자하면 시장 대비 이길 확률이 높다”며 “안정적인 기반을 가진 고가주식은 주가가 하락해도 가격복원력이 뛰어나고 경기가 회복될 때는 해당 섹터에서 지위가 한층 강화된다”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2019년 예상 매출액 10조, 영업이익 1조 이상인 기업〉

기업명	매출액	영업이익
삼성전자	2,450,348	525,888
SK	1,066,906	66,014
현대차	1,007,337	38,693
LG전자	664,459	32,674
POSCO	660,436	55,208
한국전력	626,564	30,542
기아차	564,667	17,381
SK이노베이션	563,901	30,274
한화	517,393	23,228
SK하이닉스	400,099	181,603
현대모비스	369,897	24,150
LG화학	322,249	25,636
CJ	314,498	16,373
삼성물산	312,679	12,338
현대중공업지주	279,987	16,240
S-Oil	277,861	18,857
한국가스공사	274,907	13,892
KT	238,170	14,341
현대제철	217,016	15,060
두산	199,523	14,974
GS	190,306	24,366
현대건설	178,504	11,351
롯데케미칼	176,034	21,532
SK텔레콤	174,288	14,497
두산중공업	159,425	12,705
KB금융	145,429	48,105
신한지주	145,113	46,431
대한항공	135,076	10,131
LG	131,547	23,705
삼성SDI	114,403	10,338
하나금융지주	109,126	33,180

(단위: 억원) /자료=에프앤가이드

가계부 쓰기, ‘작심삼일’ 되지 않으려면?

1 자세히 쓰려는 욕심 버려야
2 빼먹은 것은 그대로 두기
3 앱·모바일 등 다양한 활용을

합리적인 지출로 돈 모으기를 실천하고자 하는 이들의 새해 다짐 리스트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목록이 있다. 가계부 작성하기다. 누구나 마음먹을 수 있지만 아무나 성취할 수 없는 ‘가계부 작성하기’.

가계부 작성은 ‘돈 굴리는 법’이 아닌 ‘돈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다. 가계부 작성을 통해 내돈이 어디로 새는지 파악하고 지출을 줄일 수 있어서다. 특히 요즘은 종이가계부 외에도 앱 가계부, 은행을 통한 모바일 가계부도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먼저 자신에게 맞는 가계부를 골라야 한다. 종이가계부는 지출 금액을 수기로 쓰면서 심리적 자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가계부 기록을 훑어보며 전반적인 소비 흐름을 파악하는데도 편리 하다. 반면 종이가계부는 다른 가계부보다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 자신에 맞는 가계부 고르기

만약 종이가계부의 장점이 좋아 시작했지만 습관 붙이기가 쉽지 않다면 포털 네이버 재테크 카페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재테크 카페에서는 그날의 종이 가계부를 찍어서 사진을 올리면 아무리 소소한 기록이라도 같이 가계부를 쓰는 회원들의 격려와 응원이 댓글로 달린다. 칭찬 한마디로 차오르는 뿌듯한 마음은 다음날의 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계부 작성하기는 돈을 지키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 /유토 이미지

수기로 작성하는 종이 가계부가 불편하다면, 지출 때마다 스마트폰 앱으로 가계부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다. 가계부 앱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결제 승인내역 SMS를 바로 분석해서 자동 기입한다.

가장 인기있는 앱으로는 ‘뱅크샐러드’와 ‘브로콜리’가 있다. 이 앱은 흩어진 금융정보를 한 데 불러와 지출관리와 자산관리를 해줘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다. 특히 여러 개의 은행계좌를 합산한 총 자산과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주식과 펀드, 대출까지 포함해 자산의 증감을 보여주고 소비패턴까지 분석해 준다. 다만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자신이 이용하는 은행의 계좌와 카드 사용 내역이 연동되도록 공인인증서 등록을 거쳐야 한다

주거래은행을 통한 스마트폰 뱅킹을 하고 있다면 해당 은행의 가계부 앱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른 가계부 앱보다 불필요한 광고가 줄어 가계부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다. 또한 거래계좌 내역도 바로 연동된다. 주 입출금통장을 기준으로 거래내역을 가계부에 바로 가져올 수 있어 수입지출 내역을 작성할 때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다른 가계부 앱과 같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경우 직전에 온 결제 승인 내역 SMS를 바로 분석해서 정리해주기 때문에 일일이 버튼을 눌러 지출을 기입할 필요가 없다.

◆ 가계부 오래 쓰는 노하우

가계부를 오래 쓰기 위해선 우선 ‘자세히 쓰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계란 값, 두부 값을 하나하나 기록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들은 별도로 붙여놓고 전체 식비 생활용품 지출로 구분해서 가계부에 기입하는 것이 편리하다. 마트를 이용한 후 영수증을 받았다면 ‘마트비 얼마’로 기입하는 것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2~3일 가계부를 빼먹게 되면 “이럴 바엔 안 쓰는 게 낫겠다”라며 지레 포기하는 마음을 먹기 쉽다. 그러나 습관이 들기 전이나 바빠 쓸 시간이 없었다면 빼먹은 건 그대로 두자. 완벽하게 할 수 없어 포기하는 것보다 자주 빼먹더라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습관이 될 때까지 가계부 쓰는 것이 부담이 되어선 안 된다.

또한 현금지출이라면 그때그때 메모하는 것이 좋다. 카드지출은 기록이 남아서 나중에라도 체크해볼 수 있지만 현금지출은 그렇게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소비를 카드로 하고 있어 현금의 사용비중은 그리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나유리 기자 yul115@

“입주권 가지면 무주택자 제외”

올해부터 달라진 ‘주택공급 개정안’

새해부터 달라진 부동산 관련 제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올해부터 부동산 관련 제도가 크게 달라진다. 특히 청년층, 신혼부부 및 무주택자가 내집마련 하기에 유리해질 전망이다. 달라진 제도를 잘 숙지할 필요가 있는 이유다.

우선 작년 12월부터 무주택자의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으로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되고 민영주택 공급 시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또한 신혼부부가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이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 다만 미계약과 미분양 발생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사전 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현행 60일이던 주택 실거래가 신고기간도 30일로 대폭 축소된다. 60일 이내라는 긴 기간은 실거래 정보가 시장 상황을 적시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 때문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인터넷 청약사이트인 아파트투유에 접속만하면 자동으로 청약가점을 확인할 수 있다. 현행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신청자가 직접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부적격자가 빈번히 나올 수 있어 청약시스템을 개편, 착오는 물론 당첨자 서류 검토기간도 대폭 줄인다.

올 1월 1일 ~ 12월31일까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취득세를 50% 감면해 준다. 취득세 감면은 기존 주택과 신규 분양주택에 모두 해당되며, 현재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고 있는 경우도 2019년까지 입주(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혼의 기준은 만 20세 이상, 혼인신고 후 5년이내며(재혼포함), 소득의 경우 외벌이는 연 5000만원 이하, 맞벌이는 연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해당되는 주택의 기준은 3억원(수도권 4억원)이하면서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 연령은 만 19~29세에서 만 19~34세로 상향 조정된다. 남성의 경우 병역 기간을 별도로 인정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10년 동안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통장을 말한다.

부동산 세제도 크게 바뀐다. 과세표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이 올해부터 5% 인상돼 85%로 상향조정 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100%(2022년)가 될 때까지 매년 5%포인트씩 상향될 예정이다.

/이규성 기자 peace@